스위스의 건축.

국제적인 스타가 된 스위스 건축가들

스위스 태생의 건축가가 남긴 소박한 건축물
종교 건물부터 박물관까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건축이란

스위스가 가진 오랜 신중함의 전통으로 인해 세계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나 가장 비싼 건물 같은 기록은 없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눈여겨볼 것은 스위스의 산부터 들판까지, 외딴 지역부터 도시까지 펼쳐진 숨결과 다양한 가치가 어떻게 건축물에 반영되는가 하는 것이다. 스위스에도 유럽이 가진 건축학적 문화의 중요한 경향성을 반영하는 건축물이 있지만, 그 규모는 확실히 소박하다. 무엇보다 스위스 역사에는 스스로를 위해 기념물을 세운 막강한 통치자가 없었다. 반면 200 년이 넘는 평화의 역사가 있다. 그로 인해 상당한 문화재가 잘 보존되어 있다. 마을과 도시 전체가 원형 주거지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베른(Bern)의 경우, 구시가지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을 정도다. 이것이 바로 스위스 전체가 "야외 박물관"이라는 명성을 얻게 된 이유기도 하다. 스위스의 흥미로운 건축에는 주거용 건물도 포함되는데, 독특한 지방색이 드러나는 전형적인 스위스 건축 양식을 보여준다. 그러다가 20 세기 초반에 들어서며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 대담하고 미래지향적인 건축물이 탄생한다. 20 년대에는 발터 그로피우스(Walter Gropius)에서 출발한 바우하우스 이론가들이 스위스를 휩쓴다. 르 코르뷔지에(Le Corbusier)가 그 중심에 있었다. 산업 사회를 인간 존재와 조합하고자 애쓴 건축가다. 그런 컨셉이 스위스에서 잘 받아들여지지 않자, 스위스 밖에서 작업을 이어간다. 하지만 그의 첫 작품과 마지막 작품이 스위스에 있다. 바로, 빌라 잔느레 페레(Villa Jeanneret-Perret)와 하이디 베버 하우스(Heidi-Weber House)다. 기능성과 편의성에 주안점을 둔 새로운 건축 방식으로 전 세계, 특히 스위스의 젊은 건축가 세대에 큰 영향을 주었다. 80 년대에는 티치노(Ticino) 출신의 마리오 보타(Mario Botta)가 정확하고 형식적이며 수공의 품위가 깃든 건축 트렌드를 이끈다. 역사와 주변 환경을 인식하며 모더니즘과 합리주의가 독특하게 공존하는 작품을 선보이며 세계적인 스타로 떠올랐다. 90 년대에 샛별처럼 등장한 헤르조그 앤 드뫼롱(Herzog & de Meuron)가 미니멀한 건축을 선보이며 세계적인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유명한 스위스 현대 건축가를 소개한다.

1. 르 코르뷔지에(Le Corbusier)
르 코르뷔지에(1887-1965)는 스위스 10 프랑짜리 화폐에 등장할 정도로 스위스를 대표하는 20 세기 건축가다. 라쇼드퐁(La-Chaux-de-Fonds) 태생으로, 초기부터 건축에 획기적인 변혁을 가져오겠다는 결심을 했다. 빠른 기술 발전과 생활 양식의 변화의 결과에 따른 논리적인 결론이었다. 건축가의 임무는 편의, 기능, 가성비 있는 디자인이라고 생각했던 그는 1920 년대 당시의 새로운 기술을 십분 활용해 강화 콘크리트, 스틸, 조립식 건축 자재로 완전히 새로운 스타일을 선보였다. 다재다능했던 디자이너답게, 도시 전체 구획 플랜을 구상하기도 했다. 스위스에서 찾아볼 수 있는 코르뷔지에의 작품은 라쇼드퐁에 있는 메종 블랑슈(Maison Blanche, 1912)와 제네바(Geneva)에 있는 클라르테 빌딩(Clarté Building, 1932), 그리고 취리히(Zurich)에 있는 하이디 베버 하우스(Heidi-Weber House)다. 파빌리옹 르 코르뷔지에(Pavillon Le Corbusier)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는 하이디 베버 하우스에는 르 코르뷔지에의 생애와 작품을 보여주는 박물관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2. 막스 프리쉬(Max Frisch)

Switzerland Tourism Korea
77 Songwol-gil, Jongno-gu, Seoul 03165
MySwitzerland.com

막스 프리쉬(1911–1991)는 스위스 대문호 중 하나로 꼽힌다. 훌륭한 건축가이기도 했다. 독어학 공부를 접은 뒤, 첫 문학 작품을 썼다. 스위스 연방 공대에서 건축을 공부한 그는 취리히에 있는 야외 수영장, 레치그라벤(Letzigraben)을 지었는데, 그의 대표 구조물이다. 이 디자인으로 1943 년 취리히 시 건축상을 수여하기도 했다. 그러나 차후 소설 "나는 스틸러가 아니다(I'm Not Stiller)"의 성공 후 작가로 전업했다. 그의 소설에는 건축가 캐릭터가 자주 등장했다.

3. 페터 춤토르(Peter Zumthor)
바젤(Basel) 태생의 페터 춤토르(1943 ~)는 스위스 동부에 있는 그라우뷘덴(Graubünden) 지역 건축을 선도하고 있다. 스위스 밖까지 오리지널 스위스 건축 컨셉을 널리 퍼뜨리고 있는 세계적인 건축가다. 완벽주의자로 잘 알려진 그는 디자인을 세심하게 다듬는데 오랜 시간 공들이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의 건물은 직설적이고 강렬하다. 현대적이면서도 현실적이다. 빛과 자재의 근본적인 요소를 활용해 건축하는 그는 최소한의 자원으로 최대한의 임팩트를 거둔다. 가장 대표적인 건축물은 그라우뷘덴에 있는 발스 테르말 스파(Vals Thermal Spa, 1996)다. 물과 초록빛의 발스 편마암, 차분한 빛이 조화롭게 상호작용하는 건축물을 만나볼 수 있다. 숨비트그(Sumvitg) 마을에 있는 카펠 소근 베네데트그(Kapelle Sogn Benedetg, 1988)은 그의 경력에 중대한 작품이다. 쿠어(Chur) 근교에 있는 마산스 레지덴셜 홈(Masans Residential Home)은 노인을 위한 거주 시설로, 큐빅 모양이 눈에 띈다.

4. 마리오 보타(Mario Botta)
스위스 남부, 티치노(Ticino) 칸톤의 작은 마을, 멘드리지오(Mendrisio) 출신의 마리오 보타(1943 ~)은 만 16 세에 첫 건물을 디자인한 천재적인 건축가다. 베네치아에서 공부를 하고 티치노에 건축사무소를 냈다. 그 후로 루가노(Lugano)에 자리를 잡고 전 세계에 그의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기하학적 형태와 빛과 그림자를 절묘하게 결합시켜 자신만의 독특한 스타일을 선보이고 있다. 고향에 작품을 많이 남겼는데, 그중 성당 건물이 두 곳에 있다. 하나는 몬테 타마로(Monte Tamaro) 산에 있는 산타 마리아 델리 안젤리 성당(Chiesa Santa Maria degli Angeli, 1996)이고, 다른 하나는 마지아(Maggia) 계곡 모뇨(Mogno)에 있는 산 지오반니 바티스타(San Giovanni Battista, 1996) 성당이다. 루가노에는 그가 디자인한 버스 터미널(2001)이 있는데, 계절에 따라 색다른 조명이 밤마다 건물을 비추어 준다. 바젤에 있는 팅겔리 박물관(Tinguely Museum, 1996)과 리기(Rigi) 산에 있는 미네랄바트 & 스파 리기 칼트바트(Mineralbad & Spa Rigi Kaltbad, 2012)도 그의 작품이다.

5. 헤르조그 앤 드뫼롱(Herzog & de Meuron)
바젤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세계적인 스타 건축가, 헤르조그 앤 드뫼롱은 자크 헤르조그(Jacques Herzog)와 피에르 드뫼롱(Pierre de Meuron)의 파트너십으로 1978 년에 사무실을 냈다. 두 사람 모두, 취리히에 있는 연방 공대를 졸업했는데, 런던의 뱅크사이드(Bankside) 발전소를 개조해 만든 테이트 모던(Tate Modern) 미술관을 설계한 것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되었다. 바젤의 사무실은 1978 년 오픈한 것으로, 2001 년에는 프리츠커 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바젤의 성 야콥 파크(St. Jakob Park, 2001)을 디자인했는데, 축구 스태디움과 바젤 최대의 쇼핑몰이 있다. 예술 작품을 보관하고 전시하며 공공 미술관으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하고 있는 샤우라거(Schaulager, 2003)도 눈에 띄는 작품이다. 비트라 캠퍼스(Vitra Campus)에 있는 비트라하우스(VitraHaus, 2010)도 이들의 재치 있는 작품이다.

6. 디너 & 디너(Diener & Diener)
바젤에 사무실을 둔 건축가다. 아버지와 아들이 팀을 이뤄 작업하는데, 19 세기 건물에 현대적인 디자인 요소를 결합해 지은 베를린(Berlina) 주재 스위스 대사관 건물이 이들의 작품이다.
빌/비엔느(Biel/Bienne)에 있는 성트르 파스카르(Centre Pasqu'Art, 1999)와 바덴(Baden)에 있는 아베베 파워 타워(ABB Power Tower, 2002), 취리히의 모비노 타워(Mobimo Tower, 2011)을 디자인했다.

7. 아네트 기공**(Annette Gigon)**과 마이크 가이어**(Mike Guyer)**
1989 년 공동 사무실을 내고 함께 작업하고 있는 건축가로, 스위스 연방 공대를 졸업한 뒤,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박물관 디자인에서 두각을 나타낸다. 다보스(Davos)에 있는 카르흐너 박물관(Kirchner Museum, 1992)과 아펜첼(Appenzell)에 있는 리너 박물관(Museum Liner, 1998)을 디자인했다. 가장 유명한 것은 취리히 서부 지역에 있는 프라임 타워(Prime Tower, 2011)로, 126m 높이, 36 층짜리 건물이다. 스위스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다.

자료 협조: 스위스 관광청 www.MySwitzerland.co.kr

Switzerland Tourism Korea
77 Songwol-gil, Jongno-gu, Seoul 03165
MySwitzerland.com